

[지문 정보]

페이지	단원	지문 번호
25~26p	유형편	유형 연습 3

기업의 활동을 평가하거나 ① 투자를 위한 판단을 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개념은 '이익률'이다. ② **이익률은 기업이 얻은 이익을 분자로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나눈 값이다. 그런데 이익은 정의 방법에 따라 다양한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이익률도 달라진다.**

기업 활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익은 '영업 이익'이다. ③ **영업 이익**은 일정 기간 영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④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와 판매비, 관리비 등의 ⑤ **비용**을 빼고 남은 이익을 말한다. ⑥ **'영업 이익률'**은 '영업 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인데, 일반적으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영업 이익률이 높다. 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 영업 이익률을 많이 보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영업 이익이 크면 기업의 실적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⑦ **여기에는 금융 비용이나 투자 손익, 외환 거래에서의 환차 손익 등과 같은 요소는 빠져 있다.** 영업 이익에서 ⑧ **이러한 요소들을** 가감한 이익을 ⑨ **'경상 이익'**이라고 한다. 일례로 부채가 많은 기업의 경우 이자로 지출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영업 이익은 ⑩ **흑자라** 하더라도 경상 이익은 ⑪ **적자가 될** 수 있다. 한편 기업에도 세금이 부과되며, 우발적 원인에 의해 생기는 특별 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경상 이익에 ⑫ **특별 손익**을 더한 후 ⑬ **세금**을 빼면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인 ⑭ **'순이익'**을 구할 수 있다. 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인 ⑮ **순이익률**은 일정 기간의 ⑯ **경영 성과**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된다.

(후략)

[연습문제]

1. 다음은 ①에 들어갈 알맞은 말입니다.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기업에 (대한/의한)

2. ②를 보고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을 서술하세요.

--

3. 제시된 기호들을 활용하여 ③과 ⑥의 식을 각각 나타내세요.

③	
⑥	

4. ⑦이 ③~⑥ 중 어떤 요소 때문에 발생하는지 서술하세요.

--

5. 제시된 기호들을 활용하여 ⑨의 식을 나타내세요.

--

6. 다음은 ⑩과 ⑪ 대신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거나 빈 칸을 채우세요.

⑩	()보다 (크다고/작다고)
⑪	()보다 (큰/작을)

7. 제시된 기호들을 활용하여 ⑭와 ⑮의 식을 나타내세요.

⑭	
⑮	

(후략)

[지문 정보]

페이지	단원	지문 번호
160p	실전편	실전 모의고사 2회 no. 1~5

(+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no. 27~32)

(가) (수능완성 수록 지문)

고전 논리에서는 어떤 진술도 참 또는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만 갖는다. 참과 거짓은 모순 관계이므로 어떤 진술이 참이라면 그 진술을 부정할 경우 진리치는 거짓이 된다. 그래서 모든 진술은 참이거나 거짓이라는 ①**배중률**과, 하나의 진술이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일 수 없다는 ②**모순율**은 고전 논리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했다. 그런데 '이 문장은 거짓이다.'(L)처럼 자신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쟁이 문장은, 고전 논리에 따를 경우에는 진리치를 단정할 수 없다. 왜 그럴까?

③**배중률에 의해서 L은 참이거나 거짓이어야 한다.** ④**우선 L이 참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이 문장은 거짓이다.'가 참이 되어 L은 거짓이 된다.** 즉 L은 참이라고 가정하는 동시에 결론은 거짓이라는 의미가 되어 모순율을 위반한다. 따라서 L이 참이라는 가정은 버려야 한다. ⑤**이번에는 반대로 L이 거짓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이 문장은 거짓이다.'가 거짓이 되어 참이 된다.** 이 또한 모순율을 위반하므로 L이 거짓이라는 가정도 버려야 한다. 하나의 진술에서 상호 모순되는 두 개의 진술이 도출되는 것을 논리적으로 역설이라고 한다. 거짓말쟁이 진술에서는 '참이라고 가정하면 거짓'과 '거짓이라고 가정하면 참'이 도출되는데 이를 거짓말쟁이 역설이라고 한다.

자기 자신을 말하는 문장 구조가 사용된 진술을 자기 지시성이 있는 진술이라 한다.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는 한국의 수도가 어디인지 말할 뿐 자기 지시성은 없다. 하지만 ⑥**'이 문장은 한국어 문장이다.'**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어떤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하고 있으므로 자기 지시성이 있다. 20세기 초 타르스키는 거짓말쟁이 진술에 사용된 자기 지시성 때문에 역설이 생긴다고 보았다. 그는 진술의 진리치에 대한 고전 논리의 가정을 고수하는 관점에서 거짓말쟁이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언어 위계론'을 제시하였다.

언어 위계론에서 '이 문장이 있다.'는 어떤 사실에 대해 말하는 진술인 대상 언어라 한다. 반면 '이 문장이 있다.'에 '거짓이다'가 덧붙여진 L은 메타언어라 한다. ⑦**메타언어란 대상 언어에 대한 참 또는 거짓을 말하는 진술로 대상 언어에 '참이다' 또는 '거짓이다'라는 진리 술어를 덧붙여 만든다.** 이때 메타언어는 대상 언어보다 위계가 더 높다. 만약 메타언어 뒤에 ⑧ 진리 술어를 하나 덧붙여 새로운 진술을 만들면, 기존의 진술은 대상 언어가 되고 새로운 진술은 메타언어가 된다. 이러한 이론을 전제로 삼아, 그는 메타언어에 포함된 진리 술어는 자신보다 낮은 위계인 언어만 언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 결과 자신에 대해서 참이나 거짓이라고 말하는 진술은 있을 수 없기에 거짓말쟁이 역설은 해소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타르스키가 언어 위계론을 제안하자 일부 학자들은 고전 논리에 없던 또 다른 규칙을 추가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 때문에 ⑨ 고전 논리의 가정 안에서 역설이 해소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⑩**이론**의 한계를 주장했다. 한편 어떤 학자들은 자기 지시성이 역설의 원인이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했다. ⑪**'이 문장은 참이다.'**는 자기 지시성이 있지만 역설이

발생하지 않는다. 참이라면 참일 것이고, 거짓이라면 거짓이기 때문이다. 또는 ㉓ 두 진술로 구성된 '뒤 문장은 거짓이다. 앞 문장은 참이다.'의 경우 두 진술에는 자기 지시성이 없어도 역설이 발생한다. 앞의 진술을 참이라고 가정하면 뒤의 진술인 '앞 문장은 참이다.'는 거짓이 된다. ㉔ 이는 참이라고 가정하는 동시에 결론은 거짓이 되어 모순을 위반한다. 반대로 ㉕ 앞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모순을 위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세기 후반에는, 진술의 진리치에 대한 ㉖ 고전 논리의 가정을 포기하는 관점에서 거짓말쟁이 진술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크립키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진리치를 가진 진술이 존재할 수 있다고 ㉗ 주장하며, 거짓말쟁이 진술이 그러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프리스트는 참과 거짓인 진술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 존재할 수 있다고 ㉘ 주장하며, 거짓말쟁이 진술이 그러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no. 27~32 지문)

고전 역학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㉙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㉚ 일정한 시간 후의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㉛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 역학에 의해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미시 세계에서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 세계에서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 5cm의 팽이를 생각해 보자. 그 팽이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중 한 쪽으로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㉜ 팽이의 회전 방향은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으며, 다만 관찰을 통해 알게 되는 것뿐이다.

이와 달리 미시 세계에서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가 회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이 팽이의 회전 방향은 ㉝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 하나의 팽이에 공존하고 있는 ㉞ 두 상태는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회전 방향으로 결정된다. 두 개의 방향 중 어떤 쪽이 결정될지는 관찰하기 이전에는 알 수 없다. 거시 세계와 달리 양자 역학이 지배하는 미시 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것이다.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㉟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말로 양자 역학의 해석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최근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적용함으로써 초고속 연산을 수행하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양자 역학에서 말하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잘 보여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미시 세계에 대한 이러한 연구 성과는 ㊱ 거시 세계에 대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니게 된 상식적인 생각들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㊲ 이와 비슷한 의문은 논리학에서도 볼 수 있다.

고전 논리는 ㊳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만 있는 이치 논리이다. 그리고 고전 논리에서는 ㊴ 어떠한 진술이든 '참' 또는 '거짓'이다. 이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과 잘 들어맞는다. 그러나 프리스트에 따르면, '참'인 진술과 '거짓'인 진술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을 제시한다. 거짓말쟁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 지시적 문장과 자기 지시적이지 않은 문장을 구분해 보자. 자기 지시적 문장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

문장은 모두 열여덟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참’인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몇 음절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하고 있다. 반면 ㉞“페루의 수도는 리마이다.”라는 ‘참’인 문장은 페루의 수도가 어디인지 말할 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은 아니다.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거짓말쟁이 문장이다. 이는 ‘이 문장’이라는 표현이 문장 자체를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기 지시적 문장이다. 그렇다면 프리스트는 왜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이에 답하기 위해 우선 거짓말쟁이 문장이 ‘참’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반면 거짓말쟁이 문장이 ‘거짓’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문장이 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프리스트에 따르면 ㉟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인 동시에 거짓’인 문장이다. 따라서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가 존재함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특히 그는 양자 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은 이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고전 논리에서는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지닌 문장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프리스트는 그것도 다룰 수 있는 비고전 논리 중 하나인 LP*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LP에서는 ㉟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몇몇 추론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전건 긍정 규칙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자. 고전 논리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한다. 이는 ㉟“P이면 Q이다.”라는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참’이라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㉟LP에서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려면,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모두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한다. 그러나 LP에서 조건문의 전건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은 ‘거짓’인 경우, 조건문과 전건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후건은 ‘거짓’이 된다. 비록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LP는 고전 논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

* LP : ‘역설의 논리(Logic of Paradox)’의 약자

[연습문제]

1. 다음은 ㉠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진술이 참과 거짓 이외의 다른 진리치를 갖는 것은 (가능/불가능)하다.

2. ㉠과 ㉡를 모두 받아들일 때 나오는 결론을 서술하세요.

3. 다음은 ‘L’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 내용을 참고하여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L이 배중률과 모순율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가능/불가능)하다. 따라서 고전 논리에 따를 때, 거짓말쟁이 문장은 유의미한 진술이 될 수 (있다/없다).

4. 고전 논리에 따를 때 ⑥의 진리치가 무엇인지 서술하세요(확정할 수 없는 경우 '확정할 수 없음'이라고 쓰세요).

5. 다음은 ⑦을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거나 빈 칸을 채우세요.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대상언어/메타언어)이고, 해당 문장에서의 진리 술어는 (' ')이다.

6. 다음은 ⑧에 들어갈 알맞은 말입니다. 빈 칸을 채우세요.

(' ') 또는 (' ')와/과 같은

7. 다음은 ⑨에 들어갈 알맞은 말입니다.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 ')이/가 의도한 대로

8. ⑩이 가리키는 대상을 서술하세요.

9. 다음은 ⑪과 ⑫가 내포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⑪	자기 지시성은 역설 발생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⑫	자기 지시성은 역설 발생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후략)

[지문 정보]

페이지	단원	지문 번호
162p	실전편	실전 모의고사 2회 no. 6~11

명목 화폐란 화폐의 겉면인 액면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 단위로 거래되는 화폐를 말하며, ① 표시되어 있는 가격을 명목 가치라 한다. 조선은 명목 화폐를 발행했는데, ② **화폐의 액면 가격에 제조 비용을 뺀 만큼의 이익인 주조 차익을 남기면 재정 수입의 증가를 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민간에는 미포(米布), 즉 쌀과 베라는 물품 화폐가 두루 쓰이고 있었으나, 태종은 닥나무 껍질로 만든 화폐인 저화(格貨)를 도입했다. 사섬서의 관장 아래 1402년에 최초로 저화 2천 장을 발행하면서 저화 1장의 명목 가치는 포 1필 또는 쌀 2말로 맞췄다. 그리고 화폐 개혁의 성공이 화폐에 대한 ③ ④ **신뢰**에 달려 있다고 보고, 저화를 통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저화의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과 저화를 시장에 공급해 주는 정책을 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화의 명목 가치는 그대로인데 시장에서 정해지는 가격인 실질 가치는 계속 하락했다. 미포와 달리 저화의 재료에는 실질 가치가 거의 없어 백성들은 ⑤ **저화 사용을 꺼렸고** ⑥ 재질의 특성상 ⑦ **위조도 매우 잦았기** 때문이다.

(후략)

[연습문제]

1. 다음은 ①에 들어갈 알맞은 말입니다. 빈 칸을 채우세요.

()에

2. ②를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1) '액면 가격'의 식을 서술하세요.

(2) 다음은 '10원 주화'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10원 주화 1개를 주조하기 위해 필요한 금속의 가치는 약 25원이다. 그렇다면 주조 차익을 통한 재정 수입의 증가는 10원 주화의 발행 목적에 해당(한다/하지 않는다).

3. 다음은 ③에 들어갈 알맞은 말입니다. 빈 칸을 채우세요.

()의

4. 다음은 ④의 의미를 정리한 것입니다.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거나 빈 칸을 채

우세요.

화폐가 (지속/일시)적으로 그 ()을/를 유지하고 ()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

5. 다음은 ⑥에 들어갈 알맞은 말입니다.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변형이 잘 (되는/되지 않는)

6. 다음은 ⑤와 ⑦이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⑤	저화에 대한 (수요가/공급이) (많음/적음)
⑦	저화에 대한 (수요가/공급이) (많음/적음)

(후략)

[지문 정보]

페이지	단원	지문 번호
164p	실전편	실전 모의고사 2회 no. 12~17

(전략)

초기의 인공 광합성 기술은 ㉮**빛에너지로 얻은 전기를 별도의 축전 장치에 모아 두었다가, 이 전기로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얻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기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손실이 생겼다. 그래서 ㉯ 빛에너지로 직접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광전기 화학 전지가 고안되었다. 이 전지는 광합성의 명반응을 모방한 것으로, 물에 '작동 전극'과 '상대 전극'이 담겨 있고 두 전극은 전선으로 이어진 구조이다. 양극인 작동 전극은 반도체 물질이, 음극인 상대 전극은 백금이 사용된다. 빛을 ㉷ 반도체 물질을 향해 ㉸**조사**하면 물은 수소 이온(H⁺), 전자(e⁻), 산소(O₂)로 분해되어 반도체 물질 쪽에서는 산소가 발생한다. 그리고 전자는 전선을 따라 ㉹ 백금으로 이동하여 물속의 수소 이온과 결합하므로 백금 쪽에서는 수소(H₂)가 발생한다. 이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일어나더라도 ㉺**빛에 부식이 되는** 반도체 물질은 전지의 안정성을 낮추므로 전극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후략)

[연습문제]

(전략)

11. 다음은 ㉮에 대한 설명입니다.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거나 빈 칸을 채우세요.

()을/를 사용하고 ()을/를 분해하여 다른 산물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와/과 유사하다.

12. 다음은 ㉹에 들어갈 알맞은 말입니다. 빈 칸을 채우세요.

()을/를 ()로/으로 하지 않고

13. 다음은 동음이의어인 '조사'의 사전적 의미 중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 : 사물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봄.
 ㉹ : 광선이나 방사선 따위를 쬐.

㉸의 사전적 의미가 ㉸, ㉹ 중 무엇인지 쓰세요.

14. 다음은 ㉗과 ㉘에 들어갈 알맞은 말입니다. 빈 칸을 채우세요.

㉗	() 전극의
㉘	() 전극의

15. 다음은 '관형어의 의미'에 대한 설명입니다(단, 아래 글에 등장하는 개념은 글쓴이가 임의적으로 정의한 개념으로 공식적으로 정립된 개념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외교관후보자 1차 인책형 no. 15 지문 중 일부)

“포유류인 사람은 어릴 때 젖을 먹는다.”에서 ‘포유류인’은 ‘사람’을 꾸며주는 관형어이다. ‘포유류인 사람’은 “모든 사람은 포유류이다.”를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포유류인 사람은 어릴 때 젖을 먹는다.”는 “모든 사람은 포유류이고, 모든 사람은 어릴 때 젖을 먹는다.”와 동치이다. 이와 같은 동치를 만들어내는 관형어를 ‘A류 관형어’라 하자.

하지만 “포유류인 동물은 새끼를 많이 낳지 못한다.”는 “모든 동물은 포유류이고, 모든 동물은 새끼를 많이 낳지 못한다.”와 동치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몇몇 동물은 포유류이고, 동물이면서 포유류인 모든 것들은 새끼를 많이 낳지 못한다.”와 동치이다. 이와 같은 동치를 만들어내는 관형어를 ‘B류 관형어’라 하자.

㉘가 위 글에서 정의된 ‘A류 관형어’와 ‘B류 관형어’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쓰세요.

(후략)

[지문 정보]

페이지	단원	지문 번호
186p	실전편	실전 모의고사 3회 no. 4~9

(전략)

한편 경제학 이론인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외부 효과가 존재하더라도 (11) 이해 당사자가 많지 않고 거래 비용이 충분히 적다면 국가의 개입 없이 개인 간에도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13) 거래 비용이란 상품의 가격 외에 개인 간 거래와 협상에 수반되는 비용 일체를 의미한다. 여기서 비용은 금전적인 비용뿐 아니라 노력 등 무형의 비용도 포함한다. (14) 이해 당사자들이 거래나 협상을 하여 그 결과로 얻는 만족감이 거래 비용보다 크다면 국가의 개입 없이 개인 간에도 충분히 (15)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코즈의 정리의 한계점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16) 외부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상황 가운데 상당수는 거래 비용이 높고, 이해 당사자들이 많거나 이해 당사자에 대한 정보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나)

공공재란 공원이나 경찰 등과 같이 (17)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공공재는 주로 국가에서 공급하는데, (18) 해당 국가의 국민이 아니거나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경제학적으로 공공재의 특성에 대해 잘 이해하려면 배제성과 경합성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배제성이란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 대가를 공급자에게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대부분 (19)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이용할 수 없지만, 국가가 제공하는 치안 서비스 같은 경우는 (20)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 배제성의 존재 여부가 다르다. 한편 경합성이란 어떤 사람이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 다른 사람이 그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빵을 사고 싶은 사람은 두 명인데 빵이 한 개라면 한 사람은 빵을 구매할 수 없으므로 빵은 경합성이 있는 재화이며, 공중파 방송은 누군가 시청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시청할 수 있으므로 경합성이 없는 서비스이다. 이처럼 재화나 서비스에 따라 경합성의 존재 여부가 다르다.

재화나 서비스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사적 재화, 클럽재, 공유 자원, 공공재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사적 재화는 (21) 돈을 내지 않으면 가질 수 없고, (22) 내가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하는 것으로, (23) 배제성과 (24) 경합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음식, 자동차 등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화나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로 클럽재는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이 없는 것으로 상수도 서비스가 예가 될 수 있다. 셋째로 공유 자원은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이 없는 것으로서 강에 사는 물고기와 같은 자연 자원이 예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후략)

[연습문제]

(전략)

6. 다음은 ㉠에 들어갈 알맞은 말입니다. 빈 칸을 채우세요.

()의 ()을/를 받는

7. ㉡을 보고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치러야 하는 '총 비용'의 식을 서술하세요.

8. 다음은 ㉢의 상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거래를 (하는/하지 않는) 것이 (하는/하지 않는) 것보다 이득이다.

9. 다음은 ㉣에 들어갈 알맞은 말입니다. 빈 칸을 채우세요.

()나/이나 ()을/를 통해

10. 다음은 '코즈의 정리'가 한계를 가지는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와 ㉥을 참고하여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 : 코즈의 정리 자체가 논리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 : 현실에서는 코즈의 정리에서 전제한 상황이 발생하기 어렵기
'코즈의 정리'가 한계를 가지는 것은, (㉤/㉥) 때문이라기 보다는 (㉤/㉥) 때문이다.

11. 다음은 ㉦에 들어갈 알맞은 말입니다. 빈 칸에 들어갈 말을 4음절로 서술하세요.

()들이

12. 다음은 ㉧이 무엇에 해당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빈 칸을 채우세요.

공공재를 ()할 ()이/가 없는 사람

13. ㉨와 ㉩ 대신 쓸 수 있는 말을 서술하세요.

14. ㉪과 ㉫에 해당하는 성질이 ㉬과 ㉭ 중 무엇인지 각각 쓰세요.

㉑	
㉒	

15. 다음은 배제성과 경합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재화를 분류한 것입니다. (나) 3문단을 보고 표를 완성하세요.

	경합성 있음	경합성 없음
배제성 있음		
배제성 없음		

(후략)

[지문 정보]

페이지	단원	지문 번호
242~243p	실전편	실전 모의고사 5회 no. 6~11

① 행정청이 ② 상대방에게 법을 집행하는 것을 처분이라 하고 처분은 ③ 법적 효과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한다. 세금 부과처럼 처분의 상대방이 가진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침익적 처분이라 한다. 반면에 영업 허가처럼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익을 부여하거나, 처벌 기간을 줄여서 처분의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줄여 주는 것은 수익적 처분이라 한다. 그런데 처분이 어떤 사유로 인하여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철회가 되면 처분의 효력은 소멸된다.

(후략)

[연습문제]

1. 다음은 ①과 ②가 무엇에 해당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거나 빈 칸을 채우세요.

①	()의 (주체/객체)
②	()의 (주체/객체)

2. 다음은 ③에 들어갈 알맞은 말입니다. 빈 칸을 채우세요.

그 ()에게 미치는

(후략)